

■ '씨프린스호 악몽' 12년 지난 여수 소리도는...

해초마저 사라진 바다사막

청정해역 여수 남해안 일대에 5천35kL의 기름을 유출했던 '씨프린스호' 사고(1995년)의 악몽은 12년이 흐른 뒤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관련기사 3·9면>

지난 11일 여수에서 뱃길로 2시간을 헤쳐 찾아간 여수시 남면 소리도 '덕포자갈' 해안, 7개월을 닦고 씻어내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던 끈적끈적한 기름 천지였던 '덕포자갈' 해안은 세월이 씻겨 기름 따는 찾아 볼 수 없었지만 어민들의 한숨은 여전히 깊었다.

아직도 곳곳에 스며든 기름이 썩어가고 있고, 기름을 분해하기 위해 무차별로 뿌렸던 유화제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소리도 특산물인 자연산 해삼·미역·성게·꽃·우뚝가사리 등을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것도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 때문으로 어민들은 보고 있다.

곳곳에 기름 찌꺼기 바다속 하얗게 변해 전복 등 패류 사라져

30년간 이곳에서 물질을 했다는 해녀 위연춘(52)씨는 "소리도 해삼·미역·김은 값도 물어보지 않고 사갔는데 이제는 따고 싶어도 없어서 못 잡는다"면서 "그나마 3년 전부터 전복이 조금씩 나와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말했다.

소리도 해역에선 지난 1995년 이전 100여 척의 어선이 멸치·붕장어·오징어·삼치·정어리·노래미 등을 잡았지만, 사고 후 하나 둘 섬을 떠나 이제는 50여 척만이 명맥을 잇고 있다.

어획량이 줄기도 했지만 '기름 묻은 물고기'라는 편견에 사고 후 2~3년 동안은 고기를 잡아도 제

대로 팔지 못해 어민들이 다른 어장으로 옮겨간 것이다. 1천여 명에 달하던 주민들도 섬을 떠나 이제는 279세대 650여 명만이 남았다.

지난해 9월에도 '여수환경운동연합'이 굴삭기를 동원해 '덕포자갈' 해안에서 깊이 3m 가량의 구덩이를 판 결과 곳곳에서 기름 찌꺼기가 발견됐다. 한국해양연구원 이 지난 1996년부터 실시한 세 차례 조사에서도 땅속에 기름이 남아 있다는 '잔존 유정'이 발견됐다.

'덕포자갈' 해안에는 과거 거센 파도에 때려러오는 각종 해초들이 수북이 쌓였다. 또 해변 바위 틈에서 자라는 해초들도 많이 농사를 겸업하는 어민들이 이곳에서 해초를 주워 흙을 섞은 뒤 밭 기름으로 썼다. 하지만 '기름폭탄'을 맞은 뒤 소리도에서는 해초가 사라졌다.

<2면으로 계속>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李대로 굳힌다 鄭으로 깨갓다

대선 D-6

종반 총력전 돌입

제17대 대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종반전에 진입한 가운데 각 후보 진영은 마지막 승부수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의혹을 끝까지 파고들고 막판 단일화 성사를 통해 '대역전극'을 노리고 있는 반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정책공약 캠페인에 주력하면서 '대세론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대북정책 등 안보 분야의 공약을 내세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차별화에 나서면서 보수층 결집을 통해 승부를 건다는 방침이다.

12일 정동영 후보는 강원도 원주 원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후보에 면죄부를 안겨준 검찰수사에 대해 국민적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권력 분점에 기초한 공동정부를 제안한다"며 이인제, 문국현 후보에 후보단일화 카드를 다시 제시했다.



오늘부터 대선 부재자 투표

제17대 대선 부재자 투표를 하루 앞둔 12일 선관위 직원들이 광주 동구 보건소 2층에 기표소 설치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부재자 투표는 13일부터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주·전남 47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광주·전남 부재자 투표 대상자는 모두 6만6천899명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제17대 대선 부재자 투표를 하루 앞둔 12일 선관위 직원들이 광주 동구 보건소 2층에 기표소 설치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부재자 투표는 13일부터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주·전남 47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광주·전남 부재자 투표 대상자는 모두 6만6천899명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이날 강원, 충청, 영남을 차례로 찾아 강화도 총기탈취 사건 이후 신변 안전 문제로 일시 중단했던 거리유세를 재개함으로써 종반 레이스의 페이스를 높였다. 이 후보는 13일 영남 유세를 마

막으로 대규모 가두유세는 자제하면서 정책 캠페인에 주력, '안정되고 준총기탈취 사건 이후 신변 안전 문제로 일시 중단했던 거리유세를 재개함으로써 종반 레이스의 페이스를 높였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과 구미, 합천 등 한나라당의 '아

성'인 영남권에서 유세를 갖고 보수층 총결집을 시도했다. 이회창 후보 측은 남은 기간 대선 판도가 '보수 대 보수' 싸움으로 집중된다면 대반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기름띠 안면도로...남하 비상

서해 '풍랑특보'...확산 빨라질 듯

11일 잠시 주춤했던 태안 앞바다 유출 원유가 다시 남쪽으로 확산되면서 저지선으로 삼았던 가의도 해역을 뚫고 천혜의 관광보호

안면도 인근까지 번졌다. 특히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이 악화되고 있어 강한 바람이 계속 불 경우 안면도 해안에 기름띠가 유착될 우려를 낳고 있다.

12일 해경 방재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기름띠가 북서풍의 영향으로 가의도 남방을 지나 안면도 연안과 36km정도 떨어진 토도 부근까지 진출했다.

가의도는 방제당국이 안면도와 대전 앞바다 등 남쪽으로 기름띠

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저지선으로 삼았던 지역이다.

특히 13일 서해중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기름띠를 해안가로 밀어부칠 수 있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되는 등 기상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안면도 해안의 기름 오염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방제당국은 근소만, 천수만 입구 등에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한편 삼도와 나지도 주변 해역에 어선 52척을 동원, 집중방제를 실시하는 등 안면도 해안으로의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일보 특별취재반>

유형직업 장학 6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ac.kr
진남과학대학
www.jn.ac.kr



인천 강화군 용무기 탈취 사건 용의자인 조모(35)씨가 사건발생 6일 만인 12일 검거돼 서울 용산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협뉴스

강화 총기 탈취범 서울서 검거

지난 6일 강화도에서 군용 무기를 탈취해 달아났던 용의자가 사건 발생 7일 만인 12일 경찰에 검거됐다. 군·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55분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종로3가 단성사 앞에서 용의자 조모(35)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7면>

경찰은 이날 "용의자가 처음에는 목비권을 행사했으나 머리에 난 상처 등을 근거로 추궁하니 범행 일체를 조금 전 자백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정오께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의 거주지가 서울 용산구라는 정보를 받고 대대적인 탐문 수사를 벌이다 오후 2시55분 종로3가

단성사 앞에서 조씨를 발견하고 약간의 몸싸움을 벌인 끝에 조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무기 유기자소를 밝힌 조씨의 편지를 11일 부산의 한 우체통에서 발견, 지문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해병대나 특수부대 출신일 것이라는 예초 예상과 달리 육군 모 사단에서 병장으로 만

기제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6일 강화도 초소 인근에서 해병 병사 2명을 코란도 승용차로 덮친 뒤 흉기로 찌르고 K-2 소총 1정, 수류탄 1개, 실탄 75발, 유탄 6발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http://marathon.kwangju.co.kr

www.ynbc.co.kr
"보름 뉴스는 연합뉴스에서 시작됩니다"
연합뉴스
뉴스의 모든 것 연합뉴스가 만들어냅니다
www.ynbc.co.kr